| 불자 세상보기 |

오락영화는 정의 다룰 수 있을까?



정재형
동국대 교수
(영화평론가)

'정의' 주제 영화 쏟아져
선악이분법 · 동화 수준 담론

'영화' 매체 그림과 같아
작가 관점서 대상 그려내
가치판단 객관성 결여

오락매체 한계, 후유증 심각
오락으로 가볍게 소비해야

영화 〈내부자들〉, 〈더 킹〉, 〈마스터〉, 〈재심〉, TV드라마 〈김과장〉, 〈힘센 여자 도봉순〉, 〈피고인〉, 이들의 공통점은? 흥행을 했거나 하고 있다는 점 외에 정의라는 주제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사회부조리나 사회악에 대한 억울함을 시원하게 풀어헤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미디어의 속성상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내부자들〉은 검찰, 언론, 기업이 하나가 되어 사회부조리를 형성하고 힘없는 사람이 희생이 되는 구조를 파헤쳤다. 주인공 조폭과 정의로운 검사는 합심하여 부조리를 척결한다. 정말 그렇게 되면 좋으련만 영화에서처럼 될 확률은 거의 없다.

〈더 킹〉에서는 검찰, 언론, 기업에다 청와대까지 연관되는 유착관계를 보여준다. 이 영화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의 핵심에 붙어 생존하는 한 정치 검사의 생존법을 비판적으로 보여준다. 항상 영화적 재현의 문제는 현실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검사를 등장시켜 그것을 저지한다는 데 있다. 모두가 한 방향이라면 그건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인 방향일 수도 있는데 생각이 다른 반대 검사는 언제나 정의로운 것일까?

〈마스터〉 역시 우리 주변에서 권력을 등에 업고 생존해 가는 큰 손 인간과 그를 비호해주는 정치권력의 부조리를 고발한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만화적으로 희화화 시켰다. 정치적 도움을 부조리로만 평가한다면 그런 조건 없이 존재하는 현실이 실제 가능하기라도 한가? 그렇지 않다면 정치가들은 왜 자신들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고 외치는 것인가?

〈재심〉 역시 억울하게 누명 쓴 인간과 그를 몰아간 정치권력과 검, 경찰 세력의 부조리를 그리고 있다. 실화이기도 한데 영화에서 그려진 이면의 반대 상황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한 방향으로만 해석하여 항의를 받기도 한다.

이들 영화나 드라마가 유행하는 데에는 심각한 후유증이 따른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정의담론이 선악이분법적이고 어린이 동화수준의 담론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오락영화 혹은 오락적 TV 드라마가 갖는 한계 때문이다. 문제는 그런 유치한 담론이 퍼져 나가 사회담론 전반을 차지하여 여야정치가들의 대국민 선전 담론으로 활용되기까지 한다는 점이다. 그런 영화들은 우리의 정치수준을 오락영화의 담론수준으로 낮게 끌어내린 장본인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영화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영화가 국민들의 정치수준을 끌어올렸다고 자부하는 시대착오자들도 있다. 마치 특정 영화가 국민들의 민주화 수준을 올렸다는 그런 식이다.

흑백논리, 선악이분법적인 가치 기준으로 사회정의를 논한다면 그건 초등학생들의 동화적인 수준이지,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근거는 분명 아닌 것이다. 영화라는 매체의 속성은 현실에서 하나의 주장만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화라는 매체를 거울이나 그림으로 비유한다. 거울은 그 거울의 상태에 따라서 반영되는 현실이 달라지게 마련이고, 그림은 화가가 위치한 단 한 군데의 관점에서만 대상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다른 가치관, 소위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하는 특성을 갖는 불구의 매체를 갖고 사회정의가 어떻다고 가치판단 해 버리면 그건 주관적인 의견 제시일 뿐이지 결코 객관성 있는 담론이 될 수 없다. 해결방법은 간단하다. 영화나 드라마 내용을 단지 오락으로 가볍게 소비하면 된다. 일부 언론들이나 정치가들이 정의가 재현된 듯 다루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의 내용이나 대상은 정의가 아니라 오락이다. 오락의 그릇에 담긴 내용물은 그저 오락일 뿐이다.



발언대
안병일 스카우트 서울남부연맹 사무처장

청소년 교육, 기성세대 변화부터

한 나라의 장래를 알려거든 그 나라의 청소년을 보라는 말이 있다. 청소년들은 우리의 희망이자 사회 변화의 동력이다. 그러나 건전하고 올바르게 성장해야 할 청소년들이 육체적 성숙과 사회적인 가치관 사이의 심리적 갈등, 추구하는 이상과 현실적 가치의 괴리 현상에 힘들어 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우리는 입시 위주의 지식교육에 사회적 성공이란 잣대만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이끌어 오는 동안 집단괴롭힘, 학교부적응, 인터넷 중독 등 많은 청소년문제의 심각성도 더불어 깊어져 왔다.

또한 사회적 불안정으로 인한 가치관의 혼돈, 소셜 미디어 사회의 지나친 상업주의, 변질된 문화화에 따른 윤리의식이 결여된 일부 기성세대들의 잘못된 모습은 오늘의 청소년들에게 거울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처방으로 건전한 청소년을 바르게 키울 수 있는 참된 교육 습관을 제안하고자 한다. 습관은 학습에 의하여 후천적으로 획득되어 되풀이함에 따라 고정화된 반응 양식이기에 이 같은 방법에 따라 청소년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 교육방법으로는 먼저 부모와 함께하는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부모들이 자녀 생활에 대해 진심어린 관심을 가지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가정 풍토가 조성될 때 가정이 부모의 교육적 권위와 사랑이 회복된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해진다.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 준거집단 활동이 활성화 돼야 한다. 청소년들이 준거집단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올바른 인성과 사회성, 리더십, 직업관 등을 함양하고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 이로써 보다 나은 인성을 함양케 함은 물론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다.

또 다양한 창의적 체험 활동과 동아리 활동이 추진돼야 한다.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활동의 영역인 창의적 체험활동과 동아리활동 등의 운영이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학교현장의 실정에 맞도록 수립되어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불교계가 적극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전인교육을 위한 문 · 예 · 체 활동이 강화돼야 한다. 문 · 예 · 체 교육이 교육과정 운영의 방안으로써만이 아니라 인성교육 차원으로 활성화되고 더불어 청소년들의 인성 함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강구돼야 한다.

건전한 사회교육 활동은 그 이면에서 적극 활성화돼야 한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취미 활동을 통해 개인역량을 강화하고 소질계발에 힘쓰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사회성을 길러 주기 위한 방법이 보다 교육적으로 실현돼야 함은 물론 다양하고 다변화된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보급돼야 한다.

끝으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기성세대가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의 전통과 문화는 미래세대에 보전하고 계승하여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역사문화 다양성을 전하고, 우리 사회의 특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현대 사회의 문제를 창의적이며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불교문화를 활용한 적극적인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균형 잡힌 세계관, 국가관은 물론 글로벌 리더십, 봉사정신 등을 함양시켜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도와 전인적인 인성을 구현토록 해야 한다. 자녀들이 가정에서 보고 느끼면서 배운 사랑이나 고마운 마음이 다양한 사회적 관계로까지 승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社說

연등빛, 희망으로 사바세계 비추길

불기2561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연등회가 다가왔다. 올해 봉축표어는 '차별 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이다. 이는 부처님이 탄생해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다른 한 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면서 외친 '천상천하 유아독존'과 맞닿는다. 하늘 아래, 땅 위의 모든 존재가 존귀하다는 이 선언은 차별적 행태가 만연한 현대사회에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연등회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오래 전부터 누구나 차별 없이 참여해 즐길 수 있는 열린 축제로 자리매김해 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차별 없는 세상'이 봉축표어로 등장한 이유는 최근 조계종이 적극적으로 입법을 제안하는 '차별금지법' 때문이다. 종교 · 성별 · 나이 · 사상 · 빈부 등 각종 분야서 암묵적으로 자행되는 차별로부터 해방돼야 한다는 부처님의 대자유 선언을 국가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불교계가 앞장서는 것이다. 수많은 차별, 위태로운 정국, 슬픔으로 인한 상처 등 우리나라엔 지금 화합과 평화가 절실하다.

올해 연등회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결혼이주여성, 외국인노동자, 장애인 등을 포함해 국민과 외국인 등 30만여 명이 연등과 함께 종로 일대를 가득 메울 전망이다.

한 명 한 명 고이 든 연등엔 희망이 담기고 그 희망은 나로부터 옆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갈 것이다. 화동세중(和同世中), 모두가 화합해 세상의 중심으로 나간다는 간절한 발원이 무명에 갇힌 사바세계를 비추는 한줄기 희망이자 너와 나를 하나로 묶는 연결고리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사찰노인대학 통해 신도 평생교육을

3월 24일 서울 조계사는 노인대학 '백송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 백송대학 입학식은 교계의 관심을 모았다. 80명 정원에 169명이 신청해 2개 반으로 나눌 정도로 인기였기 때문이다. 노인대학은 노인 복지시설 중 복지관, 경로당과 달리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취미 및 소득보장,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동안 불교계에는 이런 문화강좌를 시스템화 시킨 노인대학이 턱없이 부족했다. 본지 조사 결과 서울 조계사, 봉은사, 대구 불광사, 부산 홍법사 등 4곳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독교계가 100여 곳의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것과 비교하면 천양지차였다.

고령화를 맞아 이웃종교계가 노인대학을 중심으로 실버 선교에 나서는 동안 불교계는 뒷짐을 지고 있었다. 2년, 그리고 1년 과정의 불교대학을 이수한 학생들이 교육에 대한 욕구가 사라질까? 이들을 위한 사찰에서의 또 다른 매개체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사찰 노인대학은 기도 외에도 사찰과 신도를 묶어주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이른바 평생교육인 것이다. 27년간 노인대학인 연화대학을 운영한 봉은사의 경우 연화대학 출신 신도들이 재입학하는 비율이 70%에 달했다.

모든 사찰이 노인대학을 운영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일정 신도를 보유한 중대형 사찰부터는 노인대학을 운영할 수 있다는 교육현장 관계자들의 말도 들려온다.

그동안 불교계는 고령층 불자들의 분포로 인해 어르신 포교에 안주해왔다. 정부 예산으로 진행되는 복지관 수탁운영, 교리공부 위주의 불교대학 운영에 치우친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문화강좌도 노인대학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찰에서 진행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스님 일생 중
가장 확실한 성공!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이곳에 오시면 나이 드셔서 염불이 점점 힘이 드는 분에게 마이크와 1미터 떨어져 모기만한 소리에도 장엄하고 은은한 소리를 되돌려 드리는 특수염불시설에 2시간의 염불에도 오히려 신명이 나는 체험을 하신 후 이 시스템을 이대로 법당에 옮기면 스님 일생 중 가장 확실한 성공이 되며 아울러 보살님들이 스님 염불소리가 테이프 소리보다 몇 배 낫다하며 기뻐합니다.

또한 이곳은 특수염불시스템 외에도 각종 음향 (마이크 방생용) 등을 고루 갖추었으니 꼭 오셔서 소리구경 하세요.

※ 단, 오시기 전 날짜와 시간을 반드시 약속하시고 사찰 관계자들과 함께 오시면 소리를 판단하는 객관적 검증이 됨으로 스님에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 (주)염불소리 / 전화 055)343-1191. 010-9471-2026